

봉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양호교사에 대한 사회와 학교, 나아가서는 정책당국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양호교사 확보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고 3년간의 체위 발달에 관한 연구

순천간호전문 논문집 제7집, 1981.

김 순 옥

본 연구자는 과거와 현재의 전국 여고생 체위 발육실태와 대도시 여고생의 발육실태를 비교하여 신장, 체중, 흉위, 좌고등, 4항목을 측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전체적인 체위 발달면에서 볼때 신장과 체중은 계속 증가 하는 반면, 흉위와 좌고 발육치가 근래에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 신장~신장 발육상태는 경제적 발달에 따른 영양 상태와 환경조건의 향상에 따른 결과에 의해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1962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의 신장 증가보다 1970년도에서 1979년도 사이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난것은 위에서 말한 외적조건의 향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전국 평균치보다 대도시에 위치한 Y 여고의 평균치가 더 높게 나타난것을 보아도 환경적 경제적 요인이 신장 발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체중~계속 증가를 보이는 것은 신장과 같다. 그러나 증가율이 과거 1962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의 증가치에 비해 근래 1970년도에서 1979년도 사이의 증가치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고 1학년에서 여고 2학년 사이의 증가보다 여고 2학년에서 여고 3학년 사이의 증가치가 적게 나타난것은 정신적 긴장이 원인이 되지 않은가 한다.

3) 흉위~1962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의 흉위는 다른 신장이나 체중과 마찬가지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적 향상에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1970년도에서 1979년도 사이에서는 전국평균치가 만15세에서만 0.1cm 증가를 보였을뿐 만16세에서 0.1cm 감소했고, 만17세에서 0.6cm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Y 여고 평균치의 경우 1979년도 평균치보다 낮은 흉위를 나타낸것은 주목할만 하다.

4) 좌고~흉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1962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의 증가는 꾸준하나 근래에 들어 1970년도에서 1979년도사이의 만15세에서 0.7cm 증가를 보였을뿐 만16세에서 0.1cm 감소, 만17세에서 0.7cm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에 위치한 Y 여고의

경우 1979년도 전국 좌고 평균치에 비해 더욱 낮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흉위와 좌고의 증가가 저조한 것은 건강 발육의 실질적인 면의 증가가 저조한 것을 의미 하므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 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자중고등학생들의 식품영양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1981.

정문희 · 이명숙

미국의 플로리다주 보건국의 관계자들이 마련한 40문항의 식품지식에 관한 정오 (True - False) 검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25문항을 골라 우리나라, 여자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틀린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생활경험교육으로써 잘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한 바 총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여중 1년에서부터 여고3년에 이르기까지 각학년별로 서울의 1개교에서 3학년씩 농촌의 1개교에서 2학년씩을 양호교사가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조사에 임한 바 분석대상은 총 1,689명이었다.

조사기간은 1980. 7. 18~7. 19. 이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처리하였다.

1. 식품영양에 관한 25문항에 대해 여자중고등학생들이 평균 틀린 문항은 9.29문항으로 37.16% 이었다.

2. 학년이 높아질수록 식품영양에 관한 틀린 문항의 빈도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여자중학생의 평균 틀린 문항은 25문항중 9.66문항(38.64%)이고 여자고등학생의 평균 틀린 문항은 25문항중 8.82문항(35.28%)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01).

3.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문항은 (1)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86.7%), (2)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82.8%), (3)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71.3%)였다.